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Ô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12188 자 01 1210109
3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소니라...”(딤후 1:15~16)



가장 도덕적이 아닌 군배

길리기가 지방의 주요 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고 배나니 지파의 히브리인이었으며 라비로서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중 누구보다 탁월한 학문적 양을 갖추고 종교적으로 많이 공부하여 유법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으로 진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당대의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깨끗한 사람(super clean guy)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의 의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단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수이라"(15절).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모든 계명을 바나 실천한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고수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는 하마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외없는 죄이득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은 역사의 무대
에 다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지른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강간, 자살과 강도, 적권남용 등으로 철저히 사회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을 통해서 극악한 범죄소식들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
런데 인간에게서 자살은 없게끔 하거나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없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가 없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물상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는 우
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깊은 죄의 굴
해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
한지, 생계가 보살인지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회개의 문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죄의 악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여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일도 되었습니니다. 그가 죄인 중의 죄인였을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어 사자로 삼으셨습니니다. 바로 이인 그 "기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이 자비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바니라" (15-16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는 말씀입니까? 참회죄도 완전한 자비라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으로부터 건지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여전히 흘러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본이 되고 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행방이요 꾀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3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푸는 배울 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그 경건한 유대인은 사실 그의 의모판공이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길의 집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소 출신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변화 후, 그는 자기의 적인 중의 포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에 낫고 낫은 곳으로 보내가서 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신이 유대에게 선 지도자의 위에 돌렸습니다. “다만 우리를 꾀박하던 자라 전에 전제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정도다 함을 듣고”(1:23).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1:24).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던 바울이 이렇듯 놀라게 된다면, 전자는 어떤

미행다 이 막이여

바우은 시로 자시이 미은 체게르 손드리케 베타시키 그저이 체헨은 투헤서 자시이 미은

을 그랬을 것이다. 그의 무지는 권력의 길에 대한 지혜로 변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었던 것임이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결론짓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매우 단순하게 말했었다. “**히브냐 모든 사마리아 딸만 한 말미에!**” 성경말씀이 바로 히브냐이다. “**히브냐**이 말미에!” 그리고 이 단순한 진술 위에 세상으로 이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붙여놓았다. “**그리스도 예수께** 좌편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원수리!**”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곧 구원을 하라 **그 빛**이신 자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나이다.

진정한 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는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부스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죄인들이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살인에 저 자살한 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비호신' 그 말씀에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들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를 하하면 멸망직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단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믿음이고, 참으로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거기에 죄인 중의 죄인으로 봤을 때, 그는 과거 율법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죄인 중의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의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는 구원을 성도들도 계속 계속 붙잡고야 합니다. 스테판을 죽인 바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아해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극악한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같이 이, 비록 어떤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이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들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할 참입니다. 분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엡 3:8). 아마도 하나님의 은사와의 소망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미치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은혜의 소망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디디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모든 참사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것”(베평후 3:9).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비밀의 말씀’이 아니니까? 바울은 복음의 연설보다 경건이 더욱 유익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의를 말합니다. “비밀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 하도다”(딤후 4:9). 그리고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비밀다 이 말이여 우리 각과 함께 죽었으니 또한 바울 살 것이요”(딤후 2:11). 복음의 진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비결 말씀입니다. 사사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바르바토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각도 저들과 똑같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만민에 대수할 것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의 죄가 없다면 우리의 자리가 저 잃어버린 자들의 자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더럽고 그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니’(롬 3:23). 여러분께서 친히, 곧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생애에 오셨다는 사실이란 무서운(공포) 생각입니다. 이것이 소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①

장 정 은 (장학생)

저는 고등부에서 교사를 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고등부 겨울 수련회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십자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는 십자가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야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악하고 추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단단히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회개하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을 후회하시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적은 돈을 빌린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사람이 다시 돈을 갚으려 하고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길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깨닫고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을 생애하는 마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옛 사람이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다시 그 분 앞에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노력합니다. 사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고, 즐거운 삶이 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길에서 얼마나 가벼워진 것일까요. 때로는 믿지 못하는 내가 꼭 그리스도 백성 갈마에 참 이상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나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 역시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고뇌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가슴을 열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다른 한 명은 먹이통과 붓을 듭니다. 붓을 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백함을 뜻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의 아미에 포를 치고, 선지들은 아미에 포를 받지 못한 나머지들을 남김없이 불로 태워 모두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다른 사람들 역시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깨닫는다면 도저히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조장을 하고, 고등부에서 교사를 하며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아서 참 행복합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생각할 때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십자가를 만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만민이 알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②

위종민 (장학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날 나에게, 지금 여기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니다. 수천회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 호기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표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한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그 분의 죽으심의 삶을 생각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니다. 가정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생명을 주는 사랑을 실천해볼까 했지만 여전히 노력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니다. 수시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졌어도 그 분의 죽으심의 삶을 찾기에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만능을 통해 그리고 고성과 기도에 의한 경건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제 경건과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동반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정제되어 있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타게 타치는 어려움과 고통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내 악함을 결코 시가하지 때문입니니다. 내 환경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그 분을 수만화해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영적 생활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내 요구에 못무당하지기나 길들을 막으실 때에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주시냐고 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또 따지는 나를 보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서 종교적인 겉절로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단순히 직적인 고백과 봉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겉절들을 하나님께 버기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게 주셨습니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마음, 겉절만 그럴싸한 종교적인 열정과 경건해 보이는 허례허식들을 드러내고서 저의 실체를 다 밝기까지 적이 있었습니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신학생이었면서도 저의 실체를 알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주원의 메시지가, 그리고의 메시지가 제게 참 생명을 준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니다.

솔직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대속의 깊이를 제대로 아는 건 주께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롬 8:11)는 말씀을 보며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영원히 더욱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그냥 죄인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 깊이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제게 너무 커서 제 인격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어느 제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분의 전적인 주권 하에 있으며 그리 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저는 정말로 생수의 강을 밟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맛 보았습니다. 즉, 제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앞에도 참 내 맘이 영원하도다’라는 고백서 작이나입니다. 인생의 주인, 삶의 안내자, 구원자,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은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이제 업으로 주를 고백한 것도, 그 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내 삶에 기쁨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의 같음이 해결이 된 것도 모두 주께에서 내게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기 숨을 쉬며 이땅에서 사는 동안 나의 나라는 위해서 살아가 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분의 죽음심이 없었더라면 제 삶은 죽음 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그 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9월 14일(주일)에서 11월 30일(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골짜기 더 달리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시 119:96)라고 말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큰 열성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자.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으로 새롭게 될 것이며, 거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달고 요만한 그 말씀 곧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9월 14일부터 교육훈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들이 시작된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주간성경공부와 교사양성부가 개편되었다. 주간성경공부는 교리반, 성경역사반, 사역반, 성장반 등 4 단계로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강좌에 고정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정식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강좌의 수료 여부를 교적부에 등재하여 각종 임직자 선정시 참고 자료로 삼기로 하였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배움과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사양성부도 새로운 과목과 편제로 이전보다 더욱더 실제적인 교사 훈련이 가능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교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본분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배가시켜 주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크게 함양할 수 있도록 각 강좌를 개설하였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거룩한 교회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는 모든 훈련 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큰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은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양성부

● 교육기간: 2003년 9월 14일부터 ~ 11월 30일까지(12주간)

● 장 소: 찬양위원회실 (본당4층)

● 시 간: 매주 주일 오후 3:00 ~ 4:30

● 수료요건: ① 출석 8회 이상 ② 과제물 70 점 이상

★ 강의 일정

날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 사
9월 14일	① 개강예배(15:00-15:40)	찬양의 영적 이유	여성기 목사
	② 찬양대원의 자격(15:45-16:30)	영적인 찬양대원의 조건	여성기 목사
9월 21일	기초 이론	음악 이론, 음정	김영 아 선생
9월 28일	초급 시청	음자리표, 다장조 악보 읽기	김영 아 선생
10월 5일	중급 시청	찬송가 계명 읽기	김남 옥 집사
10월 12일	① 찬양대원론(15:00-15:40)	찬양대원의 자격과 책임, 역할, 자세	이 훈장로
	② 영적예배와 찬양(15:45-16:30)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찬양	여성기 목사
10월 19일	복식 호흡과 발성	복식 호흡과 발성의 이해	강 임 구 집사
10월 26일	복식 호흡과 발성	복식 호흡에 의한 발성훈련	김 소 연 집사
11월 2일	발성 연습	공명기관 연구 및 실습	김 창 근 집사
11월 9일	발성 연습	발성기관과 공명기관 종합연습	백 인 수 집사
11월 16일	발성 연습	찬양곡을 통한 발성적 합창연습	김 소 연 집사
11월 23일	발성적 합창지도	종합적 발성연습	서 준 성 집사
11월 30일	① 찬송가 연주론	찬송가의 구조 이해 및 부르기	강 임 구 집사
	② 중강예배	예배 및 수료식	여성기 목사

주간 성경 공부

● 교육기간: 2003년 9월 16일(화)부터 ~ 11월 19일(수)까지 (10주간)

이브리서 김경주 목사 - 수 (오후 2:00-3:30)

마태복음 안창덕 목사 - 수 (오후 2:00-3:30)

요한복음 김용덕 목사 - 수 (오후 2:00-3:30)

에베소서 방준영 목사 - 화 (저녁 7:30-9:00)

빌립보서 서광진 목사 - 수 (오후 2:00-3:30)

느헤미야 이태복 목사 - 화 (오전 10:30-12:00)

★ 주간성경공부 교과과정

단계	과정	개설강좌(학분)
1단계(교리반)	구원론(2학기) 기독교론(4학기)	로마서 - 허브리서 마태 - 마가 - 누가 - 요한복음
2단계(성경역사반)	구약역사(4학기) 신약역사(2학기)	창세기 · 출애굽기 · 민수기 · 여호수아 · 사사기 · 심산 · 왕하 4복음서(연대기적) · 사도행전
3단계(사역반)	교회론(1학기) 예배와 찬양(1학기) 실천적 교회론(2학기) 복음전도(1학기) 영적지도력(1학기)	에베소서 시편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4단계(성장반)	기독교 역사론(2학기) 기독교 세계관(2학기) 지도자 리더십(1학기) 민명의 삶(1학기)	창세기 · 요한계시록 전도서 느헤미야 이그로서
민명의 뿌리와 열매	총 24학기(12차)	구약 14권 · 신약 18권(중복 허용)

교사 양성부

● 교육기간: 2003년 9월 14일 ~ 11월 30일(12주간)

● 시 간: 매주 주일 오후 3:00 ~ 4:30

● 장 소: 제1교육관 208호

● 과 제 물: 성경연구입문(존 스톱트 저음, 최낙진 옮김, 성서유니온, 1986)

* 모든 수강자들은 전 교육기간 동안 보조교사로서 원하는 부서에서 실습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의 일정

날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 사
9월 14일	개강예배(15:00-15:40)	교사철학, 동기부여	정현민 목사
	만남(15:40-16:30)	교사의 소명의식, 동기	이종식 집사로
9월 21일	성경 맥락기	한 논리로 보는 성경 이해	류병희 목사
9월 28일	성경연구방법	성경연구를 위한 기초	김경수 목사
10월 5일	성경연구 실제	성경연구 모델 제시	장 훈 목사
10월 12일	성경교수법	각 부서별 성경교수 이론	양재용 목사
10월 19일	본분 성경공부	본분공부 및 지도를 위하여	이희식 목사
10월 26일	공과교수 실제	공과교수시 문제점 보완	정진호 목사
11월 2일	구원론	교회/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종대 목사
11월 9일	기독교론	교회/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김교성 목사
11월 16일	교회론	교회/교회란 무엇인가	서광진 목사
11월 23일	교사론(15:00-15:45)	교사의 소명, 교회교육 중요성	최종철 목사
	심방론(15:45-16:30)	심방의 자세 및 중요성	안지원 목사
11월 30일	반복론(15:00-15:45)	반 운영 요령	정충신 목사
	중강예배(15:45-16:30)	예배 및 수료식	서광진 목사

전도대원 훈련

● 교육기간: 2003년 9월 17일(수) ~ 11월 5일(수), 총 8주간

● 장 소: 나사렛총(본당 1층)

● 시 간: 매주 수요일 오후 2:00 ~ 4:00

일자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사
9월 17일	전도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전도의무	여국근 목사
9월 24일	전도의 내용	전도할 내용에 대한 이해	
10월 1일	결신자의 의미와 내용	결신이란 무엇인가	
10월 8일	전도실습1/교회주변 전도	현장실습	
10월 15일	전도의 실제적 문제	전도 시 부딪히는 실제적 문제	
10월 22일	반대질문 및 답변	반대질문 답변 및 문제해결	
10월 29일	전도실습2/방문교회전도	현장실습	
11월 5일	수료예배	예배 및 수료식	

남녀구역장 영성훈련

● 여성구역장

1) 시간: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2) 장소: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3) 강사: 각 교구 교역자

4) 교재: 월간(충현의 만나) 중 구역예배 공과

● 남성구역장

1) 시간: 매월 1회 수요일 2부 예배 후(교구별로 주간지정)

2) 장소: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3) 강사: 각 교구 교역자

4) 교재: 월간(충현의 만나) 중 구역예배 공과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불가리아	13교구 1지역	임연수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4교구 5지역	박우현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8교구 2지역	박송길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8지역	조중광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17교구 9지역	전학래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7지역	김종홍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9지역	김종신
8월 15일(금)~8월 22일(금)	키르기스탄	17교구 12지역	박광래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3지역	정재모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0지역	박문태
8월 13일(수)~8월 21일(목)	리투아니아	5교구 6지역	김달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슬리랑카	17교구 5지역	정선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리투아니아	17교구 6지역	이용현

누구를 보내며

오 순 도 (안수집사, 4교구 2지역 불가리아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
기 있다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저희 단기선교팀은 2월경에 9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풍부한
선교경험과 달란트에 만족하며 선교를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
만한 마음을 책망하시며 팀원 중 4명을 교체하셨습니다. 또한 7명의 인원을 보
강하시면서 예수님의 12사도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12명의 팀원을 구성케 해
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하
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7월 15일 교회를 출발하여 10박 11일 동안 불가리아의 ‘도브
리츠’를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험벗고 소외된 불가리아
집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였고, 그 결과로 14곳의 집
시 마을을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열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
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배고프고 지친 집사
들의 마음은 옥토 밭이었고 회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집사들의 모
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심을 우리 팀원들은 현지 사역 중에 체감하였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렸
습니다. 또한, 오후 1시경 피야별 아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만들
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역 9일 쯤에는 ‘연약’이라는 뜻의 ‘오프로치시메’에서 어린이 사역과 전도
집회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 곳이 아랍어와 코란을 가르치는 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곳에서 감히 복
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로 동
역한 무슬림 신자들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도 있었습
니다.

불가리아에는 인구의 1%인 약 9만 명 정도의 개신교인이 있고 총 인구의 5%
인 집사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사역과 교회가 없
는 마을과 도시를 중점적으로 선교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불
가리아는 선교전략 상 동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교팀이 불가리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그동
안 불가리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 달라고 계속 기
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과 나타남과 능력으로

박 준 상 (대학부)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
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
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
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5).

단기선교를 위해 불가리아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역기간 동안 실현시켜 주셨다. 낯선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처음 나아갈 때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하나님
께서는 내가 가서 전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
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가리아에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나에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오
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게 하셨다. 그 땅과 많은 영혼들
의 변화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고 고백한 자마다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무언극을 통해 나의
몸동작은 그들이 헛된 상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눈동자이다. 신기해 하
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어린이들의 눈동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갈급함 없이 살아왔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의 눈동자같이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주변
의 핍박에도 홀로 묵묵히 사역하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역자를 만났을 때는
그 사역자를 통해 불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심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피야별 아래서 정말 힘든지 모르고 긴 시간을 사역할 수 있었다. 사역을 할
수록 이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했다.

어느덧 10박 1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국을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
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짧은 10박 11일이라는 시간. 그곳에
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불가리아의 온 땅이 변화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한다.

98 주일학교 후기98

작은 보금자리

제가 다녀온 키르기즈스탄

정 희 숙 (청년1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 84:3).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참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며, 자신들의 앞에 놓인 상황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며 자기 자식을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아는 데전, 영어과의, 학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대부분을 회사에 의지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명예, 권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교제, 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삶의 고백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박윤하)

나의 연약함

강 지 영 (청년1부)

키지흐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혼자 갖고 있으면 보내주신 분과 기도해주신 분들에게 회중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해마다 선교가는 분들을 보면서서도 그리 큰 사모임이 없었고, '설마 내가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참 많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금 문제도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갑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의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벗어나 황량한 곳에 덩그러니 떨어뜨려진 느낌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교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전도하는 길마다 세밀하게 살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에는 그곳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게 지는 해가 좋았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처치 팀은 노방전도만 했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돌입없이 걸을 때도, 자못 치가 많은 길이를 걸어야 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날에는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멘' 하고 대답할 때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사영리도 전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속으로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은 기쁨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며 그들의 회담에 감사하더라구요. 그런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나 혼자 멀쩡히 멀어져서 판단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노라' (고전 2:4-5)라고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지게 났습니다. 나의 믿음의 얼마나 연약한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라 전도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더라도 경찰의 감시에 움츠러들고, 기운내서 다시 전하더라도 소심해지기를 반복하며 전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곳에 뿌려진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읽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내내 한국에서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감이 마음에 든다고 고마웠고, 기쁨의 힘이 그 곳에서 이루어짐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항상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벌써 많이 추워져 있었지만, 폭풍 양지에 나가면 따갑도록 뜨거웠지만 나무그늘에 들어가면 해도 금세 서늘함이 느껴졌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는 통역을 해 준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무슬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무슬림이었는데, 무슬림이라고 하면 서로 지위가 말하는 전도지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저희가 잘못 말한 것인가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특별히 종교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 그런 이름만 무슬림이라고 하는 단계라더군요. 소련의 지배 하에 있을 때는 사회주의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구요. 그래서인지 저희 팀은 '까라콜' 지역에서 500여인의 성경을 돌리고,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온 사람만 40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거든요. 많은 이슬람 사원의 열성 무슬림들도 있어 방해와 탄압도 받았는데도 선교가 잘 이루어져 정말 감사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으면서 그곳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게된 선교사님이 CIS지역을 '창'(窓)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다 종교가 정착하지 않은 것이 선교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비롯하여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이 일찍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종교를 속에서 "너무 많이 뛰가 된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뒤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나 저는 답답함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연약을 지면

율법이 있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율법의 의도는 변질된다. 법이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졌으나 율무가 되어 우리를 고통하는 것을 보라. 한 법을 과도하게 지키려다 보면 또 다른 법을 위배해야 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래서 겸사와 변호사가 법과 법을 대립시키며 싸우게 된다. 그리고 그 법은 종종 법을 잘 알고 있는 악인에게 사용되어 선한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도 세상의 범법적 의도를 일깨워주는 순간 사단에게 이용되어 우리를 죄를 줄 수 있다.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만들어진 당시로 가 보면 될 것이다. 처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세게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부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를 사함 받는 자 아닌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롭게 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데 율법적, 윤리적 잣대를 사용한다. 윤리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자 윤리적으로 착한 자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훌륭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다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와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방종매체를 통해 종종 보고 한다. 방송 타이틀에는 '평화로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범종 연합 불우 이웃 돕기' 등의 글들이 쓰여 있다. 이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했다. 이웃을 돌보고 과부나 고령자를 돌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계명을 어겼다. 이렇듯 율법이 중심이 되면 한 율법이 다른 율법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시하고 기독교를 지키면 전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또한 의도를 율법화시킨 것이다. 또 의도는 간 데 없고 "기독교를 지키면 전도만 잘하면 된다"는 행위로 남았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행위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 윤리적 모습이나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위 자체가 중심이 되면 의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 율법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율법'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다.

*복음과 율법 참조 (권오섭)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존 오웬(John Owen)

그 어떤 상태와 상황에 처해도
그 어떤 곤경과 두려움을 만나도
그 어떤 반대에도 부딪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의 거울로 보고 있네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결코 모순되지 않음.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저 어려움
울음이 새워놓은 바
내 생명과 위로를
가르막던 저 어려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조화되고 일치됨으로써.

참고 구절: 롬 3:24-26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좋아한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찬양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도 군대이야기입니다. 군 복무시절 실수한 후임병을 꾸짖었는데 그 병사가 심신하여 통합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적어도 군기교육때, 심각해지면 영창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때 저는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 할 테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때 기도한 것이 찬양대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무사히 마무리 되고 그 사건이 있었던 주일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린 찬양입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양을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고등부 찬양대(1982년)부터 지금까지 찬양대는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했는데, 그때도 대학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군대 이야기인데 처음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모두 크게 고향을 그리기 때문에 금방 목이 쉬기도 저도 바로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완전히 쉬기 전에 찬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시간에 자진해서 복음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계기로 군생활 중 여러 가지 경험(군종병 및 육군합창단)도 하게 되었고, 특히 찬양의 중요함과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이 온전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찬양할 기회가 있다면 찬양을 합니다. 비록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가끔씩 독창이나 현금송을 할 기회가 되면 주저없이 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마음이지요.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주혜와 종민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있는 친구, 형제들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김상권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원혜림 기자)

다음 주일 찬송

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철저한 칼빈주의 가정에 태어난 프레드릭 윌리엄 패이버(F. W. Faber, 1814-1863)가 1849년에 작시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1절의 "허다한 증인들"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찬송이다.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허다한 증인들의 유산이다. 몸에 무거운 돌을 단 채, 물에 던져져 순교한 심포로사, 불 속에서 순교한 폴리갑과 같이...

- 1절 토굴, 불, 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우리 선진들의 믿음!
그 영광스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고통치네
- 2절: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사슬에 매인 선진들, 그러나 마음과 양심 자유로웠네.
만일 그들이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면 그렇게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
- 3절: 선진의 믿음, 우리에게 닮은 모든 싸움에서도 우리는 친구나 원수 모두를 사랑하리라. 친절한 말과 고귀한 삶을 통하여 깨달도록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리라.

후렴) 우리 선조들의 믿음, 거룩한 믿음,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리라.

각각의 음마다 가사를 소리에 실어서 각 음절을 정확히 지켜서 노래해야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되어져야 한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출판 선조들로부터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전정위원회)

주요요일

11교구 평창구역 심신회 성도

뇌출혈로 강남병원 403호에 입원 중입니다. 군부대에서 전도 사역 하는 데 생을 보내,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빠른 쾌유와 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은 아들 한 명이 전부입니다. 아들이 주님을 알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출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17교구 수내구역 김영숙 성도

간에 염증과 담석이 있어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1111호에 입원 중입니다. 아픈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79	서주식	1 소망부 서운성(1)	1084	박준원	19 청년2부	1089	이정민	19 대학부 전용혜(8)			
1080	김형우	1 청년2부 이윤일(13)	1085	박준원	19 청년1부 박영자(16)	1090	김종미	19 대학부 전용혜(8)			
1081	이석산	7 청년2부 오순옥(7)	1086	이정아	19 청년1부 박영자(14)	1091	정소라	19 중등부 전경규(17)			
1082	김병집	11 청년2부 전용혜(8)	1087	문정진	19 청년1부						
1083	나기훈	17 청년2부 김옥현(14)	1088	정진철	19 청년1부 전용혜(8)						

※ 출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임 경 순 (소년부교사)

나는 교회 주변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던 선생님과 함께 학교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요일 11시 50분이 되면 저학년 친구들이 학교 앞에 하나 둘 교문을 향해 나오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친구야, 안녕! 친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교회에 나가요", "안 믿어요", "옛날에 다다가가 지금은 안 다니요"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나는 한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친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래요?"

그리고 그 친구의 학년, 반, 이름을 적는다. 처음에는 집 전화번호를 적었지만 거절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학년, 반, 이름을 적어 같은 반인 우리 교회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연결시켜 주기로 하고, 나는 신앙고백서에는 대충 줄을 두었다. 전도는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 나는 학년, 반, 이름을 기록한 것을 기초로 나를 만났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편으로 보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해 준 친구가 곤욕을 당했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려는 욕심이 내게 있었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여있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나에게서 복음을 들은 어린 아이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 다시 전도 받는 일이 있을 때, 학교 앞에서 전도받던 일을 기억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어졌다."

그 학교는 복받은 학교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와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전도대회를 하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전도지의 고백을 읽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그 뒤에 줄 서있는 광경을 나를 감동시킨다. 교회학교에서 전도훈련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어렵고 미련한 방법으로 영약한 사단의 계와 맞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나는 믿는다.

믿음의 열매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박 연 미 (초등부교사)



아마도 내가 초등부 아이들 도래일 때였을 것이다.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교회가 있는 길은 항상 상쾌하고 즐거운 내 마음과 같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뭐가 그리 좋았는지 전 날 밤에 잠을 설쳤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초등부 교사로서 봉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급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직 어리지만 초등부 아이들이 선교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많은 초등부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 준비하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도 교회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갈절히 기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어린 영혼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내게 그랬듯이, 교사들의 기도는 믿음으로 자라날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맡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들에 아이들이 많이 물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미를 좇아가고, 학교와 학원에 쫓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에 처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일인진 주님의 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아직은 어려운가 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초등부는 많은 것을 배웠다. 목사님의 말씀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분반공부와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매일 접하는 세상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소중한 믿음으로 크게 자라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별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추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

예수님 사랑해요

여명인 (유년부)



내가 초등학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얼굴에 조그만 물집이 생기더니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빠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여러 가지를 검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서는 '대상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은 신경을 따라 퍼지는데 얼굴이라서 눈에 세균이 들어가면 매우 위험하다며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실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약을 먹으며 치료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파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얼굴 절반이 매우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영영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픈 말이에요.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우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고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정말 신기하고 기뻐서 온 집 안을 뱅글뱅글 뛰어다녔습니다.

얼마 뒤, 고난 주간에 나는 내가 아팠던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나의 죄가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믿음의 학교에서

너희가 돌아오면(대하 30장)

남 유다왕국의 제 13대 왕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대하 29:1-11).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브엘세마에서부터 단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5절). 브엘세마에서부터 단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보람꾼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6절b).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권고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있고 사는 그 하나님, 열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뿔뿔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8절a).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함과 여러 끝내는 항상 우리의 목을 하나님 앞에 곧게 합니다. 나의 사고, 생각, 지식 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악하게 하지요. 다른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는 모습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9절b).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한다면 은혜를 베푸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나도 힘듭니다. 한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 본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안에 다시 돌아가 거하자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모습입니다.

(권형일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전체 월례회
일시: 31일(주일) 15:00
장소: 갈릴리움
2.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27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안나바움
3. 남녀 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오늘(주일)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4. 군전도회 월례회
일시: 29일(금) 18:00
(17:00부터 식사)
장소: 배다나움

별세

1. 강병규 티교집사 강종국 집사의 부친, 3교구/강성국 성도의 부친, 14교구/8월 12일 별세, 8월 14일 장례
2. 김희재 성도 김준식 성도, 안인원 은퇴직원의 장남, 11교구 팔동2구역/8월 20일 별세, 8월 22일 장례

주 소 변경

1. 유상태 안수집사, 김정희 권사 용인시 상복동 731 엘리자(68 60) 20호
2. 황기용 안수집사, 오화자 권사 영동로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801호 ☎ 783-6085

결혼

1. 양준호 군(안태혁 전도, 선부와 집사의 아들, 6교구)과 김선화 장미원 인원 씨, 관양동 씨의 딸/8월 30일(토) 15:00 천년대영홀(☎ 532-5868)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운전직·경비직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등화직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매일예배 중 선교회

◆제1동산 묘본 전제 이장 (연구자들은 이장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충현기도원 내에 있는 묘본 전제를 제 2동산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광고하여 이장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충현기도원 내 제 1동산 장소에 새로운 용도에 생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전제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묘본의 안자들은 이번 기회에 이장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들이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 밟 절차를 따라 임의로 이장하게 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국의 김병수 집사(016-9252-7469), 제 2동산의 표연식 집사(011-237-9671)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비용 / 170만원 1) 경비-110만원(묘역비, 비석, 전단, 인건비 등)
2) 관리비(10만)-60만원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기간: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이번주 새벽기도회 답당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주일)
--	-------	-------	-------	-------	-------	-------	--------

설교자/기도자	김종국/엄필성	장 훈/이원희	고광환/김형권	임현덕/최호일	김익희/강승진	위건광/강영원	방준영/김말자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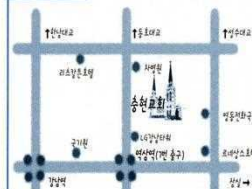
예배 답당안내 (8/27-8/31)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8/27	수요일		여성기	유영희	백사바를 만났더니 135-40 안영희 목사
8/27	수요일		안현진	고광자	보 헬름 1213 박인기 목사
8/29	금요일	특별찬양 (소라노 구자는 변별 중영인(15교구))	이종대		안영희 목사
8/31	주일 I		하종철	이병학	미쁘다 이말이여(대림 112-17) 최종환 목사
8/31	주일 II	심자기를 내리고 의 양아들인 여승장(전기도: 홍성비)	김교성	최기훈	미쁘다 이말이여(대림 112-17) 장진호 목사
8/31	주일 III	환난과 광복 중에도 의 욕망중립(원형원) 오스트리아 김진아 씨)	이종대	김모용	미쁘다 이말이여(대림 115-10) 정현민 목사
8/31	주일 IV	환난과 광복 중에도 의 버려진 시종(성경이브라임) 장영대 씨)	고광환	박용국	미쁘다 이말이여(대림 112-17) 나영원 목사
8/31	주일 V	햇빛을 받는 곳이다 의 소라노 김지희(한영대 솔로리스트)	이종철	신상수	미쁘다 이말이여(대림 115-10) 정현민 목사
8/31	주일예배		여성기	최용덕	그들에게 들을지니(사 16:20) 서장원 목사

충현기도원의 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복음화 열매를 맺는 영적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열한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와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안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전교회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

교회 소식은 길



심 · 기 · 는 · 분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찬양예배	V 오후 5:00	본 당
	(영어,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본당 앞 출발
요요집회	오후 11:00	교회입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II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치 부	I 오전 9:00	교육관 3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장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말 부	오후 12:15	강 리 홀
신촌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사 바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약 100명)	교육관 207호
박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예배다부	오전 9:30	강 리 홀, 배다나움
출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초기교육원	주간교육	출현 복지관
국제타이완인부	오전 11:00	아 연 홀
출현신학교	오후 6:10	강 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사무장

김철민	김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희연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정운석	김영진	조진석	김종국	최무길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재석	이창호	차신숙	김광남	이종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이병욱	안종국	임우진	최기훈	이재국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진호	전종필	이정호	김단국	황영일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원용철	이형수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안영환	황의만	김구형	최유덕	이계인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박익환	이대식	정대부	박용규	권명호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조종환	배준수	김영환	이성호	박상진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지우	노영환	박지현	정정진	신상수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 위임목사

김성관	김정현	김동하	서정진	박인기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교성	이유진	안정현	방준영	나영원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정진호	김용덕	이성국	고광환	위건광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종환	하종철	안지현	이태복	정종신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안재욱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전도목사	이정철	남전도사	이영희	(외교)
전도목사	전도목사	전도목사	전도목사	전도목사
정원희	신동자	윤운식	한영준	김연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홍순애	이옥주	김경선	이대순	김진경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조종환	강덕철	김정진	장재국	최윤선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전도목사	김영순	김경자	이수경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 찬양감독: 김진국
- 찬양감독: 김소연
- 단기전교: 강기영 (신학)
- 합력전교: 허요섭 (신학)